



무에타이 할아버지와 태권 손자

- * 글: 김리라
- * 그림: 김유대
- * 출판사: 웅진주니어
- * 정가: 9,500원
- * 분량: 156쪽
- * 대상: 초등 6학년

· 책 소개

이 책은 관우가 할아버지를 만나면서 자신의 정체성과 가족의 참의미를 체험해 나가는 따뜻한 이야기입니다. 태국인 아빠와 한국인 엄마를 둔 관우네 집에 처음으로 태국에 계신 할아버지가 한국을 방문합니다. 관우는 할아버지에게 태국 무술인 무에타이를 배워, 평소 자신을 놀리던 동국과 부하들을 혼내주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비쩍 마른 데다 이까지 빠져 버린 할아버지가 과연 무에타이를 할 수 있을까요? 할 줄 안다고 해도 말이 안 통하는 관우가 무사히 무에타이를 익힐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무술에만 관심 있었던 관우. 하지만 낯설게만 느껴졌던 할아버지가 관우처럼 라면을 좋아하고, 관우가 하는 태권도를 따라서 하는 동안, 관우와 할아버지는 서서히 진짜 가족이 됩니다.

· 주요 독후활동

무에타이 할아버지와 태권 손자	책 속으로	① 태국 할아버지의 정체 ② 겁쟁이와 거짓말쟁이 ③ 매울 것 같은 젤리
	토론&논술	① 국동섭은 별을 받아야 할까? ② 다름을 존중할 수 있는 방법
	창의융합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한 건의문 기획하기



독서 전

국어 교과_독서 단원 연계

책 미리 보기 : 제목, 앞뒤 표지

-책의 제목, 앞뒤 표지의 글귀, 그림을 살펴봅시다.

- 책의 제목과 앞표지에 그려진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궁금한 점을 생각해 보고 이 책에서 어떤 이야기를 다룰지 예상하여 써보세요.

인물에 대해 예상하기	
배경에 대해 예상하기	

※ (2~3) 책의 뒷표지에 쓰여 있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보세요.

얼굴 안 닳고 말 안 통한다고, 가족이 아닌가요?

태국으로 돌아간 할아버지가 동네 할아버지들 앞에서
내 사진을 보여 주며 태국 말로 얘기했다.
“야가, 바로 내 손자 관우여! 태권도를 겁나게 잘해부려!”
다들 너나 할 것 없이 입을 떡 벌리고 내 모습을 보고 있었다.
나도 할아버지를 자랑하고 싶었다.
“우리 할아버지는 무에타이 할아버지다!”

- 윗글에서 소설의 주인공 ‘관우’와 태국에서 오신 할아버지의 공통점을 찾아 정리해보세요.
⇒
- 여러분에게 ‘가족’이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족의 의미를 각자 자유롭게 써보세요.
⇒



독서 중 등장인물의 성격 분석하기

※ 『무에타이 할아버지와 태권 손자』를 읽으면서, 각 등장인물의 행동을 바탕으로 각 인물의 성격을 정리해보세요.

(1) 김관우

행동
- 자신보다 키도 크고, 덩치도 크고, 태권도를 훨씬 잘하는 국동섭에게 괴롭힘을 당하지만 대응하기보다는 국동섭을 피해 다닌다.
- 할아버지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느끼고 동네 상가에서 얼른 벗어나고 싶어 한다.
- 태국에 사는 할아버지께 혼자서 편지를 쓰기 위해 태국 말을 배워야겠다고 생각한다.



성격

(2) 신수호

행동
- 관우를 괴롭히는 국동섭과 부하들을 놀라게 하기 위해 관우의 할아버지가 무에타이 선수라는 거짓말을 한다.
- 수호의 엄마는 유리창을 깨거나 싸움에 휘말리는 관우와 놀지 말라고 했지만, 수호는 관우의 편에서 친구가 된다.



성격

(3) 국동섭

행동
- 관우가 싫어하는 걸 알면서도 '태국 간장'이라는 별명을 부르며 괴롭힌다.
- 관우의 할아버지가 보여 준 태권도를 보고 무에타이 도장에 다니기 시작하였으며, 더 이상 관우를 괴롭히지 않는다.



성격



독서 중 중심 내용과 관련된 주인공의 심리 변화

※ 다음 글을 참고하여, 주인공 관우가 태국 할아버지에 대해 느꼈던 감정의 변화를 인과 관계가 잘 드러나게 정리해보세요. 단, 제시된 <조건>의 단어들을 모두 넣어 문장을 구성하세요.

내일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태국 할아버지가 온다. 그동안 엄마아빠한테 얘기만 들었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다. 비행기값이 엄청 비싸서 그동안 올 수 없었다고 했다. 그런데 드디어 만나게 된 거다. 할아버지 생각을 하니 실실 웃음이 났다. 게다가 내일은 크리스마스다. 할아버지는 분명 내 선물을 사 올 거다. 처음 만나는 손주를 위해 선물을 준비하지 않았을 리 없다.



그 순간, 국동섭 얼굴이 떠올랐다. 그 녀석이 비실비실한 태다 이도 다 빠진 태국 할아버지를 본다면 무에타이 선수라고 믿는커녕, 수호랑 나를 가만두지 않을 게 뻔했다. 태국 할아버지를 아이들한테 보여 주었다가는 웃음거리만 될 것 같아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다.



조금 전까지 태국 할아버지가 원망스러웠는데 막상 간다는 말을 들으니 기분이 이상했다. “참, 너도 고추 젤리 먹어 봤니? 엄마 말이다. 노란 고추를 두 개나 먹었다가 아주 혼났지 뭐니.” 아빠가 엄마 눈치를 살피며 ㅋㅋ 웃었다. 그러나 엄마는 복수를 하려는 듯 나에게 콧속말을 했다. “관우야, 아빠는 네 개나 먹었다.” 엄마는 금방이라도 웃음이 터질 것만 같은 얼굴이었다. “아버지는 참, 고추 젤리 만들 생각을 어떻게 하셨을까?” 아빠 말을 듣고 귀가 번쩍 뜨였다. “누가 고추 젤리를 만들었다고요? 설마 할아버지가요?”



밖에 나와 보니 엄마가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아빠와 태국 할아버지가 나란히 뒷자리에 올라탔다. “안녕히 가세요!” 나는 고개 숙여 인사했다. “관우, 안녕히 가시오!” 태국 할아버지도 내게 인사했다. 차가 움직이자 태국 할아버지는 창문으로 얼굴을 내밀며 손을 흔들다가 엄지를 추켜세워 보였다. 할아버지가 정말 가는구나. 가슴이 뭉클했다. 나는 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서 있었다. 집으로 들어가는 발걸음이 무거웠다.

<조건>

자랑스럽다, 실망하다, 기대하다, 아쉽다



독서 후 책 속으로 ① 태국 할아버지의 정체

※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상대 선수가 허무하게 쓰러지더니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어. 그 일로 할아버지는 감옥에 가게 되었지. 나중에 상대 선수가 쓰러진 게 할아버지 때문이 아니라 심장마비로 밝혀져서 금방 풀려나기는 했지만 말이야. 할아버지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무에타이를 그만 두셨단다. 아마도 충격이 크셨나 봐. 그래서 가족들을 다 제쳐 놓고 떠돌아다니기만 했어. 그때 할아버지가 가족을 돌보지 않아서 밉고 원망스러웠어. 그래서 내가 일자리를 찾아 한국으로 와야만 했어. 할아버지 대신 가장 노릇을 해야 했으니까. 처음에는 낯선 땅 낯선 나라에 와서 고생했지만 나중에는 네 엄마를, 사랑하는 애자 씨를 만나 결혼도 하고 널 낳아서 행복해졌어. 이상하지? 이 모든 게 그토록 밉고 원망스럽던 할아버지 덕분이라니. 너를 낳고 나도 아버지가 되고 나서야 할아버지를 조금씩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단다. 다시는 할아버지 얼굴을 안 보려고 했는데 말이야."

(나) 작전 1. 밤새 눈이나 평평 쏟아지게 기도하기: 그러면 비행기가 이륙하지 못할 것이다.

작전 2. 바지 감추기: 그동안 태국 할아버지는 집에서 아빠 옷을 입고 지냈다.

입고 온 옷 한 벌이 전부였던 단벌 신사이다.

작전 3. 감기 걸리기: 엄마 아빠는 일하러 나가야 하니까 내가 아프면

태국 할아버지가 날 돌봐줄지도 모른다.

(다) 사와디캅,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빠와 함께 옷 가게에 가서 처음으로 어른 바지를 사 봤어요. 지난번에 오셨을 때 바지가 없어져서 당황하셨죠? 사실은 바지를 숨긴 범인이 바로 저랍니다. 할아버지 못 가시게 제가 감춰거든요. 결국 할아버지는 아빠 바지를 입고 가셨지요. 죄송해요. 다음부터는 절대로 안 그럴게요. 그리고 다음번에 오시면 바지를 감추는 대신, "할아버지, 가지 마세요."를 태국 말로 배워서 말할 거예요. 용서해 주실 거죠?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며, 손자 관우 올림

1. (가)에서 태국 할아버지는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

2. (나)에게 관우가 세 가지 작전을 짰던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

3. 외모도 다르고, 말이 통하지 않아도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다)를 참고하여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써보세요.

⇨



독서 후 책 속으로 ② 겁쟁이와 거짓말쟁이

※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나랑 같은 학교, 같은 태권도 도장에 다니는 국동섭과 부하 녀석들만 생각하면 가슴이 벌렁거리고 머리가 지끈거린다. 그 녀석들은 나를 보기만 하면 '태국 간장'이라고 놀려 댈다. 그럴 때마다 속에서 불덩이 같은 게 올라오지만 나는 참는다. 솔직히 말하면 그 녀석들과 싸울 용기가 없다. 그래서 늘 마음만 상한다. 이런 내 성격이 마음에 안 들어 고쳐 보려고 노력했지만 쉽게 바뀌지 않는다. 때 수건으로 내 피부를 아무리 세게 밀어도 하얘지지 않듯이 말이다. 예전에 내 단짝 수호도 나를 놀린 적이 있다.

"관우야, 맨 처음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게?"

"아마 박테리아가 진화해서 사람이 되었을걸!"

"아니거든. 하느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대. 그리고 나서 가마에 넣고 굽다가 깜빡 잠이 들어 버렸는데 깨어서 꺼내보니 까맣게 타 버렸대. 그게 바로 흑인이야. 두 번째 구울 때는 또 탈까 봐 서둘러 꺼냈는데 글썸, 허연 게 덜 구워졌대. 그게 바로 백인이야. 세 번째는……."

"알맞게 잘 구워져서 황인종이라고?"

"그래, 맞아. 그런데 넌 몇 번째냐? 흑인도 아니고 백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황인종도 아니잖아. 아, 맞아! 별종이다, 별종! 우헤헤."

(나) "수호 너, 왜 그런 거짓말을 했어? 나중에 들통 나면 어쩌려고?"

"너 그거 알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 앞에서 태권도 기합만 넣어도 그 사람들은 무서워 벌벌 떤대. 우리 아빠가 그랬어. 한국 사람이 다 태권도를 잘하는 줄 안대잖아. 그러니까 너네 할아버지가 무에타이 기합만 넣어도 저 녀석들이 깜빡 속을 거야. 아니지.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풍무니가 빠지도록 달아날걸."

수호 때문에 간신히 위기는 넘겼지만, 태국 할아버지가 무에타이 선수가 아니라는 걸 녀석들이 눈치챈까 봐 벌써부터 가슴이 두근거렸다. (중략) 그런데 국동섭은 왜 나를 괴롭히는 걸까? 내가 남보다 피부색이 까만 게 어때서! 우리 아빠가 태국 사람인 게 어때서! 국동섭에게 태국 할아버지를 보여 주었다가는 보나마나 나를 더 괴롭힐 게 뻔했다. 이사 가자고 할까? 경찰서에 신고할까? 이번 기회에 아예 태국으로 가 버릴까?

1. (가)에서 잘못된 말이나 행동을 하는 친구는 누구일지 생각해 보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정리해서 쓰세요.

⇨

2. 만약 관우처럼 친구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친구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

⇨



독서 후 책 속으로 ③ 매울 것 같은 젤리

※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엄마 아빠는 같은 공장에서 일하다 만나 결혼을 했고, 이듬해 나를 낳았다. 엄마가 아빠랑 결혼하겠다고 말씀드리자 외가에서 반대가 엄청 심했다고 했다. 첫 번째 이유는 아빠가 외국 사람이라 안 되고, 두 번째 이유는 엄마가 아빠가 결혼하면 외국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다. 엄마는 아빠 아니면 처녀 귀신이 되는 한이 있어도 다른 남자한테 시집은 절대 안 간다며 울며불며 한바탕 소란을 피웠다고 했다. 그러자 외할아버지는 결혼해서 한국에 사는 조건으로 허락을 해주었다고 한다.

"태국에서는 엄마가 외국 사람일 텐데요?" 나는 궁금해서 아빠에게 물었더니 태국에서는 외국 사람과 결혼하는 걸 그리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나) "아빠, 태국 할아버지는 어떻게 이런 젤리를 만들 생각을 하셨대요?"

내가 묻자 아빠가 태국 할아버지에게 내 말을 전했다.

"빨간 젤리는 걸로 보기엔 맵게 보이지? 알고 보면 속은 꿀처럼 달콤한데 말이야. 할아버지가 널 생각하면서 만드셨대." 아빠는 말을 겨우 이었다.

"에앵! 내가 빨간 젤리 같다고요? 겉은 맵게 보이지만 속은 꿀처럼 달콤하다고요?"

나를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있었다니……. 그동안 태국 할아버지를 귀찮아했던 마음이 눈 녹듯이 사라졌다. 할아버지는 날더러 빨간 젤리 같다고 했지만 내가 느끼기에는 태국 할아버지가 바로 빨간 젤리 같았다. 그동안 할아버지의 겉모습만 보고 달콤한 속마음은 보지 못했다.

(다) "할아버지가 내게 선물하고 싶어서 여기저기 데려가신 건데 왜 그냥 왔어?"

'선물 같은 건 필요 없어요. 할아버지가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바람에 사람들이 우리만 쳐다보지 뭐예요. 창피해서 죽을 뻔했던 말이에요.' 마음 같아서는 이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꼭 참았다.

"할아버지는 태국으로 돌아가신대."

"언제요?" 엄마 말을 듣고 나자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만 같았다.

1. (가)에서 관우의 외가에서는 왜 외국 사람과의 결혼을 반대하셨을까요?

⇨

2. (나)에서 할아버지가 관우에게 '빨간 젤리 같다.'고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

3. (다)에서 관우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관우에게 선물을 주려는 태국 할아버지의 마음을 모른 척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관우의 친구라면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은가요?

⇨



독서 후 토론과 논술 ④ 국동섭은 벌을 받아야 할까?

※ 다음은 『무에타이 할아버지와 태권 손자』의 본문 일부입니다. 단지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관우를 괴롭힌 국동섭은 태국 할아버지를 만난 뒤로 조금 변한 듯 보입니다. 국동섭은 그동안의 폭력적인 행동에 대해 벌을 받아야 할까요? 아래 글 (가)~(다)를 참고하여 자신의 입장을 정하고, 의견을 뒷받침할 수 있는 타당한 근거를 들어보세요.

(가) "너, 말 다했어! 너 같은 깡패보다는 관우가 백 배 천 배는 더 낫다. 어쩔래? 그러니깐 넌 친구가 없잖아. 아마 너한테 무슨 일 터지면 네 부하 녀석들이 가장 먼저 도망칠걸!"

"뭐야! 이 자식이 봐주니깐 자꾸 까부네. 너네 아빠도 태국 사람이었다면 벌써 한방 얻어맞았을 거다!" 국동섭이 손가락으로 수호 머리를 톡 치며 말했다. 금방이라도 내 가슴속에서 불덩이 같은 게 솟구칠 것만 같았다.

"국동섭! 아빠가 태국 사람인 게 어째서 그래? 우리 아빠가 너한테 피해 준 거라도 있냐? 있으면 말해 봐! 넌 아빠도 없잖아. 내가 모를 줄 알고!" 국동섭이 아빠가 없다는 걸 진작 알고 있었지만 말로 한 건 처음이었다.

"누가 그래?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나) 국동섭은 우리 아빠에 대해 함부로 말했다.

"태국 간장 아빠 말이야. 곧 태국으로 쫓겨날 거래. 불법체류자래."

"야, 태국 간장 네 자전거 말인데 꼭 네 피부색처럼 칠해 놔다." 국동섭은 수호랑 야구를 하느라 놀이터에 세워 두었던 내 자전거를 가까운 논두렁에 처박아 놓기도 했다. 그런데도 나는 바보처럼 말 한마디 하지 못했다.

'중국! 나빠. 정말 나빠! 김관우! 바보! 정말 바보!' 속으로만 외칠 뿐이었다.

"우리 아빠 욕하지 말고 차라리 날 때려! 자, 실컷 때려 보라고! 때려 봐!" 내가 머리를 국동섭한테 들이밀자 녀석이 나를 때어 놓으려고 안간힘을 썼다.

(다) 태국 할아버지가 떠난 지 한 달이 조금 넘었다. 겨울 방학도 끝나고 개학을 했다. 신기하게도 국동섭은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았다. 그런데 아이들한테 놀라운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다. 얼마 전 무에타이 도장이 새로 생겼는데 국동섭이 거기에 다닌다고 했다. 그제야 나는 국동섭이 태국 할아버지가 보여 준 태권도가 무에타이인 줄 알고 훌쩍 반했다는 걸 알았다.

주제 : 국동섭은 과거의 잘못에 대해 벌을 받아야 할까?

나의 입장 : 국동섭은 벌을 (받아야 한다. / 받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독서 후 토론과 논술 ② 다름을 존중할 수 있는 방법

※ 여러분도 누군가를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던 경험이 있나요? 혹은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타인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하지 않았나요? 아래의 자료 (가)와 (나)에 나타난 공통적인 문제점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써보세요.

(가) 방송인 A는 그룹 (여자)아이들 외국인 멤버의 서툰 한국어를 희화화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외국인의 서툰 한국어 발음이나 억양을 웃음거리로 소비하던 예능 관행을 문제 삼는 대중의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이다. A는 지난 6일 (여자)아이들이 출연한 생방송 SBS 파워FM <두시탈출 컬투쇼>에서 대만 국적의 (여자)아이들 멤버 슈화의 ‘닭다리’ 발음을 듣고 ‘다따리(닭다리)’ ‘단날개(닭날개)’ 등으로 희화화하며 모사했다. 이후 (여자)아이들 해외 팬들을 중심으로 비판 여론이 형성됐다. 국내·외 누리꾼들은 A의 모사를 두고 “엄연한 제노포비아(외국인 혐오다)” “10년 전엔 그런 류(외국인 방송인 억양 희화화)의 개그가 먹혔을 지라도 지금은 아니다”며 비판했고, A의 SNS에는 슈화와 청취자들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글들이 줄이었다.

A는 결국 사과문을 내고 “희화화하고자 한 것은 절대 아니고 열심히 억양을 맞춰 나가는 모습이 귀여워서 따라했던 것인데 분명히 불편하게 보였다”며 해명했다. 그는 “당연히 당사자에게 연락해서 사과의 뜻을 전달했고 그와는 별개로 제 실수에 대해 다시 사과의 글을 올린다”며 “앞으로 더 신중하게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며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A에게 쏟아진 비판과 그의 발빠른 사과는 외국인의 한국어 발음을 희화화하는 예능 프로그램의 관행을 유머가 아닌 외국인 혐오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대중의 인식 변화를 함축한다. -경향신문 기사 발췌

(나)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로 이사 와서 만난 아이가 있어요. 까무잡잡한 얼굴에 이목구비가 굽지 해 한눈에 다문화 가정의 아이란 걸 알았어요. 아이는 왠지 낯 뜨겁게 떠돌고 장난을 치기도 하고, 태권도 도복을 입고 누가 더 발차기를 잘하는지 겨루기도 했어요. 다른 아이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고, 잘 지냈어요. 속으로 ‘저 아이는 겉모습 때문에 놀림을 당하지는 않을까?’하고 걱정했거든요.

어느 날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 아이를 만났어요. 손에 지폐를 꼭 쥐고 친구들과 아이스크림을 사 먹으러 가는지 들떠 있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2학년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물었어요.

“외국인 형, 나도 아이스크림 사 주라. 응?” 순간, 조금 전까지 활짝 웃고 떠들던 그 아이 얼굴이 조금 어두워졌어요. “너 다시 말해 봐, 내가 왜 외국인이야!”라면서 2학년 아이에게 꿀밤을 먹이는 게 아닌지 조마조마했지요.

“너 그렇게 말하면 아이스크림 안 사 준다.” 그 아이는 나지막하게 타이르는 듯 말했어요.

“미안해, 난 형 이름을 몰라서 그랬어.” 2학년 아이는 머리를 굽적이며 미안한 얼굴로 사과를 했어요. -『무에타이 할아버지와 태권 손자』 작가의 말 중에서



독서 후 창의융합_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한 건의문 기획하기

※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방법’이라는 주제로, 일상생활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봅시다. 타인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차별적인 표현, 행동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찾아보고, 사람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해결 방안을 건의해봅시다. 아래 제시된 형식에 맞추어 건의문을 기획해보세요.

제목	
구체적인 문제점 (사례)	
문제의 원인	
해결 방안	
기대 효과	

[예시답안과 가이드]

■ 독서 전

- (예시답안)
 - 인물: 표지에 그려진 할아버지와 손자는 외모, 복장, 할 수 있는 운동 등 많은 점이 달라 보인다. 그런데 둘 다 두 눈에 불을 켜고 같은 곳을 비추고 있다는 점에서 함께 지키고 싶은 무언가가 있음을 알려주는 것 같다.
 - 배경: 배경의 그림에는 <제 4회 응진주니어 문학상 수상작>이라는 마크가 새겨져 있다. 문학상을 왜 수상했는지, 어떤 점이 특별함이 있는지 찾아보고 싶다.
- (예시답안) 관우와 할아버지 둘 다 운동을 좋아한다. 또 서로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도 둘의 공통점이다.
- (예시답안) 내가 생각하는 가족이란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며,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존재이다.

■ 독서 중

◎ 등장인물의 성격 분석하기

(1) 김관우

행동	성격
- 자신보다 키도 크고, 덩치도 크고, 태권도를 훨씬 잘하는 국동섭에게 괴롭힘을 당하지만 대응하기보다는 국동섭을 피해 다닌다.	⇒ 부당한 일을 당하면서도 용기가 없어서 국동섭의 잘못된 행동을 내버려 두고 있다. 자신감이 없고 다른 사람의 시선에 많이 신경을 쓴다. 할아버지와 친해지고 싶어 하며, 할아버지와 더 많은 말을 나누기 위해 태국 말을 배우려고 한다.
- 할아버지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느끼고 동네 상가에서 열린 벗어나고 싶어 한다.	
- 태국에 사는 할아버지께 혼자서 편지를 쓰기 위해 태국 말을 배워야겠다고 생각한다.	

(2) 신수호

[예시답안과 가이드]

행동	성격
- 관우를 괴롭히는 국동섭과 부하들을 놀라게 하기 위해 관우의 할아버지가 무에타이 선수라는 거짓말을 한다.	⇒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거짓말을 하여 오히려 곤란해진다. 관우와 친구로서 의리를 지킨다.
- 수호의 엄마는 유리창을 깨거나 싸움에 휘말리는 관우와 놀지 말라고 했지만, 수호는 관우의 편에서 친구가 된다.	

(3) 국동섭

행동	성격
- 관우가 싫어하는 걸 알면서도 '태국 간장'이라는 별명을 부르며 괴롭힌다.	⇒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괴롭히며, 차별 대우한다.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하다.
- 관우의 할아버지가 보여 준 태권도를 보고 무에타이 도장에 다니기 시작하였으며, 더 이상 관우를 괴롭히지 않는다.	

◎ 중심 내용과 관련된 주인공의 심리 변화

(예시답안) 관우는 태어나서 처음 밭을 갈아버지보다, 할아버지에게 받을 선물을 더 기대한다. 하지만 선물은 없었고, 태국에서 오신 할아버지에게 무에타이를 배워 자신을 괴롭히는 국동섭을 혼내주려던 계획마저 무산되자 실망한다. 그러나 할아버지가 자신을 생각하며 만든 썰리를 먹어보고, 썰리에 담긴 할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게 된다. 가족을 위해 무에타이 선수가 되었던 할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되었으나 할아버지가 태국으로 가시게 되자 아쉬움을 느낀다.

■ 독서 후

◎ 책 속으로 ① 태국 할아버지의 정체

1. (예시답안1) 다른 사람의 고통에 공감할 수 있는 분이다. 할아버지는 심장마비로 쓰러진 상대 선수의 죽음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며 무에타이 선수를 그만둔다. 무에타이 선수로서 일하지 못하게 되어 가족들의 생계도 어려워졌지만,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찾아 떠돌며 용기 있게 새로운 일에 도전하려는 분이다.

(예시답안2) 사고 이후 가족을 돌보지 않은 모습이 무책임하다. 상대 선수의 죽음 때문에 감옥에

[예시답안과 가이드]

갔지만 곧 무죄가 밝혀졌다. 그럼에도 갑작스럽게 선수 생활을 그만두고 떠돌아다닌 점은 가장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

2. (예시답안) 할아버지가 태국으로 못 가시게 할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태국 할아버지가 진짜 무에타이 선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국동섭을 혼내 줄 작전을 함께 짜려고 했는데 할아버지가 태국에 가신다는 말을 듣고 서운했기 때문에 작전을 짰 것이다.

3. (예시답안) 말이 통하지 않으면, 서로의 언어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된다. 가족이란 서로를 이해하고 진심으로 아껴줄 수 있는 존재이다. 가족이 되기 위해 중요한 점은 서로를 대하는 태도라고 생각한다. 겉모습이나 언어능력이 관계를 만드는 데 필수적인 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 책 속으로 ② 겁쟁이와 거짓말쟁이

1. (예시답안) 국동섭은 관우의 외모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며, 관우가 싫어하는 별명을 사용해 관우를 괴롭히고 있다. 또한 수호도 황인종이 더 우월하다는 이야기를 하며 관우가 별종이라는 등 인종 차별적인 말을 했다. 또한 국동섭과 수호 모두 관우에게 상처를 주면서도 죄책감을 느끼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2. (예시답안) 선생님이나 부모님, 어른들에게 문제 행동을 하는 학생에 대해 이야기하고, 어떻게 대응할지 함께 상의했을 것이다.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학생의 잘못에 대해 아이들에게 알리고, 침묵하지 말고 관우의 편이 되어 달라고 이야기할 것이다.

◎ 책 속으로 ③ 매울 것 같은 켈리

1. (예시답안) 외국 사람과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기 때문에 소통하기가 더 어려울 것이라는 편견 때문인 것 같다. 아끼는 딸이 혹시 외국 사람과 만나 고생을 하지 않을까 걱정했기 때문에 결혼에 반대하셨을 것이다.

2. (예시답안) 아무 향이 없고, 빨간 색인 켈리는 겉모습만 보았을 때 맵게 보였지만, 속은 꿀처럼 달콤했다. ‘빨간 켈리 같다’는 말의 의미는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의미이다. 겉으로는 무뚝뚝하고 할아버지를 귀찮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할아버지에 대해 따뜻한 마음을 지니고 있는 건우를 ‘빨간 켈리’에 비유한 것이다.

3. (예시답안) 관우야, 다른 사람들이 자꾸만 쳐다보면 나도 창피한 마음이 들었을 거야. 하지만 나에게 좋은 선물을 하기 위해 애쓰고 계신 할아버지를 창피하게 생각한 건 잘못된 생각이야. 다른 사람의 시선에 따라 행동하기보다는, 무슨 일이든 자신감을 가지고 떳떳하게 행동하면 좋겠

[예시답안과 가이드]

어.

◎ 토론과 논술 ① 국동섭은 벌을 받아야 할까?

(예시답안1)

국동섭은 과거의 잘못에 대해 벌을 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국동섭은 관우의 외모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차별하고, 관우를 괴롭혀 왔다. 태국 할아버지를 만난 뒤로, 관우와 같은 도장을 다니지 않고 괴롭히는 일도 없어졌지만, 그렇다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국동섭은 관우에게 아직 사과를 하지도 않았다. 국동섭이 지금 벌을 받지 않는다면 자신이 한 폭력적인 행동들이 잘못인지 알지 못한 채,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될 것이다.

(예시답안2)

국동섭은 과거의 잘못에 대해 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처벌을 받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국동섭이 관우를 차별하고, 원하지 않는 별명을 부르며 괴롭힌 것은 잘못된 행동이다. 하지만 그 책임이 모두 국동섭에게만 있다고 할 수 없다. 타인을 존중하는 방법을 학교에서, 가정에서 먼저 알려줘야 했다. 국동섭에게 필요한 것은 벌이 아닌, 인권에 대한 적절한 교육이다. 국동섭에게 벌을 준다면 오히려 관우에게 복수하려는 마음만 더 커질 것이다. 국동섭이 진심으로 관우의 마음을 공감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칠 수 있게 도와야 한다.

◎ 토론과 논술 ② 다름을 존중할 수 있는 방법

(예시답안)

(가), (나) 제시문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문제점은 다름에 대한 존중이 부족했다는 점이다. (가)에서 A는 외국인 방송인의 한국어 억양을 희화화하며 웃음거리로 삼는다.

(나)에서 2학년 아이는 겉모습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한국인이 아닐 것이라는 선입견에 빠져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사람들이 보인 태도는 주목할 만하다. (가)에서 청자들은 A의 발언을 유머로 받아들이지 않고, 외국인에 대한 혐오와 조롱이라며 비판했다. (나)에서 2학년 아이의 말에 상처

[예시답안과 가이드]

를 받았을 이웃집 형은 화를 내는 대신 2학년 아이가 스스로 잘못을 판단할 수 있도록 조용히 타이른다.

누구든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게 되거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상처가 되는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다.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시민들의 의식 변화이다. 다름에 대해 존중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고, 실수를 했다면 잘못을 고치려고 하는 태도가 필요할 것이다.

◎ 창의융합_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한 건의문 기획하기

(예시답안)

제목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먼저 차별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말자.
구체적인 문제점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심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표현들이 사실은 편견이나 차별을 조장하는 경우가 많다. 사례 1. '결정장애'라는 표현은 선택을 잘 하지 못하는 성격을 표현하는 말로 많이 쓰이지만, 장애인을 비하하며 차별하는 표현이다. '장애'라는 표현을 '잘 못 한다.'라는 의미로 읽게 만들어 편견을 조장하기 때문이다. (책 '선량한 차별주의자' 중에서) 사례 2. '불법체류자'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로 대체되어야 한다. 행위가 아닌 사람의 존재 자체를 불법으로 칭하는 것은 분명한 인권침해다. 어떤 사람도 존재 자체로 불법이 될 수는 없다. (영화 '안녕, 미누' 시사회에서)
문제의 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소에 자주 쓰는 말이지만,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 부적절한 언어 표현이 차별을 더 퍼트릴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기 때문이다.
해결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말, 신조어 등을 사용할 때 반드시 정확한 의미를 알고자 노력한다. - 내가 사용하는 표현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지는 않을지 스스로 점검해 본다. - 텔레비전 프로그램, 책, 영화 등 매체에서 부적절한 표현이 사용되었을 때, 고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을 한다.
기대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별적인 말과 행동을 더 빨리 없앨 수 있다. - 사회 구성원 전체가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을 키울 수 있다. -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는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다. - 사람들에게 말의 중요성에 대해 경각심을 느끼게 한다.